

# '나눔 · 기부공간' 호응

### 5개월만에 이용객 9000명 돌파

익산시가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나눔 · 기부공간'이 위기가구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협력으로 추진되는 나눔 · 기부공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며 복지 선도 지자체로 부상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익산행복나눔마켓 ·뱅크에 다이어움 나눔공간을 개

장하며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더 많은 위기가구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나눔공간은 개장 5개월 만에

9,274명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공간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는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운영으로 대기 기간을 줄여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시민 단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과 성금으로 운영되는 나눔공간은 지난 5개월 동안 280곳에서 5억6천만원 상당이 기부돼 지역사회 나눔과 연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눔공간의 호응은 다양한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나눔공간 소식을 접하고 5천만 원을 톨 크게 기부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으며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나모씨 부부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절약해 모아 둔 1천만 원을 쾌척했다. /김재훈 기자

# '범죄예방대상 대통령 표창'

### 김경구 군산시의원, 보호관찰 · 사회정착지원 분야 유공 수상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24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제3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분야 유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하고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해 멘토링 활동과 비행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등 평소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멘토링 결연으로 일탈 행위 예방에도 앞장서왔다. /군산=한영봉기자

김경구 의원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물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사회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구 의원은 1997년 3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20여 년간 매진했으며, 지난 2019년 3월에 법무부 산하 군산보호관찰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보호관찰위원 조직 구성에 앞장서는 등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군산=한영봉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새만금아카데미 7월 7일 개강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배움터! 제21기 군산새만금아카데미가 열린다.

군산시는 제21기 군산새만금아카데미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조영구 강사의 '백세시대, 배운 삶'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개강한다고 밝혔다.

올해 군산새만금아카데미는 웃음과 소통, 자녀교육, 역사, 건강, 도시재생, 힐링 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첫 강좌에 강의를 맡은 조영구 강사는 자신의 노래와 열정으로 많은 웃음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유명연예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 정현을 시장, 남부지구 도로개설 현장 '소통행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부지구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 행진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24일 김충영, 정경호, 이순주 익산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대표 등 20여명과 함께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살펴하며 준공 전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도로는 인화동 남부탈림센터와 신천 나룻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2류43호)로 39억원이 투입돼 확장공사가 진행됐다.

이번 공사 총 연장 305m 도로에 우수시설을 정비하고 폭을 기존 10m에서 17m로 확장했으며 왕복 2차선, 양방향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확보했으며 다음달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해 시민들의 불편과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돼 왔으며 도로가 빗물에 침수적으로 침수돼 개선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가올 장마철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아동주거환경 개선' 맞손

### '지켜줘! 그린홈즈' 선포식

### 드림스타트 가정 발굴 · 환경개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익산시가 지역 아동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 드림스타트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함께 손을 잡고 지역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정현을 시장과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유기달 익산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가정 아동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지켜줘! 그린홈즈' 선포식을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 20여 가구를 발굴해 추진된다.

대상 가구에는 시건장치, 전선관리, 조명교체, 해충방지, 곰팡이 제거, 화장실 노후개선 등의 환경개선 사업 비 2천여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이어 익산시 드림스타트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아동 사례를 발굴하고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익산후원회에서는 지원 모금 활동과 물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정현을 시장은 "아동은 지역과 나라의 미래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며 "익산시는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달 익산후원회장은 "익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익산'을 비전으로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 익산시 대표 음원 '익산으로' 영상 공모전 개최

익산시가 지역 대표 음원인 '익산으로'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내가 만든 익산으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영상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이나 팀을 구성해 CF · 뮤직비디오 · 브이로그 · 단편 영화 · 패러디영상 · 플래시몹 등 다양한 장르 중 참가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5분 이내의 동영상 FHD(1920X1080 pixel)를 제작한 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onlychul11@korakr)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예비심사 ·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5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추후 익산시 홍보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익산으로' 음원 홍보와 함께 공모로 발굴된 참신한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나아가 전국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으로'는 지역 출신 대표 가수 마크툼(MAKTUB)이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작사 · 작곡하며 노래한 음원이다. /김재훈 기자

# 강임준 시장, 직원과의 소통 대화 큰 호응

군산시는 계정금 이상 간부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통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시장과 직원 간 딱딱한 주제를 벗어나 평소 마음속에 품었던 허물없는 생각들을 대화로 이끌어 내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대화에 참석한 직원들은 민선7기 3

년을 맞아 가장 기억에 남을 일, 롤 모델로 삼고있는 분은 어떤분이며 어떤 시점으로 남고 싶은지, 직원 청사 내 근무환경개선 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모 직원은 "내가 시장님과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들었지만, 대화를 편하게 이끌어줘서 시종일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

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시장은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소통이 민선행복이다"라고 운을 뗀 후 "소통은 군산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모든 직원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사회적으로 활력이 회복되는 시기에 야외 공간에서 부서별 또는 직원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 원광대학교병원,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은 환자 보호자 및 내원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하여 병원 경영진을 비롯해 전 교직원들이 감염 예방 홍보, 소독, 병원 출입 관리,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코로나 19 퇴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3월 6일 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진들의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접종을 시작으로 6월 25일 기준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과 행정인력, 기

타 용역업체를 포함하여 2,361명을 대상으로 최종 접종을 완료했다. 1차 접종 89%, 2차 접종 88%에 달해 환자, 보호자 및 교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7월경 진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과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 및 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모더나 예방 접종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